

## 미국의 인종 정책과 치카노 문학의 등장\*

박종율  
조선대학교

박종율(2013), 미국의 인종 정책과 치카노 문학의 등장.

**초 록** 본 연구는 미국의 지배 계층인 와스프와 미국 내 대표적인 소수 민족인 치카노의 충돌 양상과 공존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20세기를 통해 어떤 변모 과정을 거쳐 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치카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으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전개하고 있으며 문학을 통해서도 그들이 겪는 서러움과 불평등을 표출하고 있다. 치카노 문학은 크게 두 시기로 나누어진다. 치카노 운동 이념을 거의 반영하지 않았던 1971년 이전의 작품들은 주로 미국 남서부지역으로 이주한 멕시코인들이 정착 사회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화 변용 과정을 다루면서 자신들의 희망이 여러 가지 장벽에 의해 막혀있음을 자각하고 태생적 문제에 눈을 뜨기 시작해야 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주류 사회에서 부르짖은 다양성과 평등은 한낱 허울 좋은 구호에 지나지 않은 다문화주의라는 점을 잘 드러내고 있다. 치카노 운동 이념을 반영한 1971년 이후의 작품들은 치카노들이 경험한 인종 차별과 착취를 고발하면서 정치적 의도를 분명히 드러낸다. 그러나 치카노 운동에 나타나는 분리주의적 민족주의를 주장한 다거나 체제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판에 중심을 두지는 않는다. 정체성 확보를 위해 인디오적인 유산을 재발견하고 평가하면서 좀 더 창조적이고 개방적인 관점에서 문화를 인식하기 시작한다. 폭력적인 권력체제에 저항함과 동시에 세대 간의 갈등을 묘사하고, 멕시코 전통의 종교적인 유산에 대해서도 차별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을 피력한다. 따라서 다문화주의의 진정한 가치를 제시하고자 노력한다.

**핵심어** 미국의 인종 정책, 다문화주의, 치카노 운동, 치카노 문학, 치카노 소설

---

\* 이 논문은 2009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9-32A-A00170).

## I. 들어가면서

본 연구 과제의 상위 목표는 미국 내 최대 소수 민족으로 부상한 라티노 사회와 미국 주류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라티노성이 갖는 실천적 의미를 구체적으로 고찰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미국 내에서 문화적 논쟁의 중심에 서있는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o)를 이론적 토대로 라티노 인구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멕시코계 미국인인 치카노들의 문학 작품을 텍스트로 삼아 라티노성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라티노성에 대한 편향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객관적인 시각을 제시하는데 필수불가결하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미국은 아메리카 대륙에 살아온 토착 원주민 이외에도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다양한 인종과 민족으로 이루어진 다문화주의 국가이지만 1960년대 젊은 이들의 반문화 운동(Counter-Culture Movement)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소위 ‘와스프(WASP)’, 즉 ‘백인 앵글로-색슨 개신교도(White Anglo-Saxon Protestands)’가 중심을 이루는 사회였다. 토착 원주민의 삶의 터전을 빼앗고, 아프리카계 미국인인 흑인을 노예로 부리고, 라티노와 아시아계 미국인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통제한 사회였던 것이다. 그러나 흑인 민권 운동 등의 영향으로 라티노를 비롯한 소수 민족에 대한 관심이 일기 시작하였다. 20세기 초반부터 중반까지 다양성 속의 통일성을 강조하는 ‘용광로(melting pot)’ 이론이 강조되었지만, 70년대 이후에는 통일성 속에 다양성을 강조하는 ‘샐러드 접시(salad dish)’ 이론으로 변화되어 다원주의(pluralismo)에서 다문화주의로 초점이 바뀌게 된 것이다.

그러나 미국 연방 대법원이 최근 흑인과 라티노 등 소수 민족 보호를 위해 제정된 법률에 대해 백인에 대한 역차별을 이유로 잇따라 위헌 판결을 내리는 재판 과정에서도 잘 드러나듯이 미국을 지배하는 사람들은 최근에도 국민들에게 백인 중심의 단일성의 이데올로기를 심어주는데 깊은 관심을 기울인다. 이렇듯 현대 미국 사회는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자 하는 계층과 문화적 단일성을 강조하는 계층이 상존하는 모순적인 사회이다.

이에 본 연구는 미국의 지배 계층인 와스프와 미국 내 대표적인 소수 민족인 치카노의 충돌 양상과 공존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20세기를 통해 어떤 변모 과정을 거쳐 왔는지에 대한 궁금중에서 출발하였다. 특히 두 진영 간의 대립과 갈등이 어떻게 소설 속에서 형상화되고 있으며, 어떤 변화 과정을 겪어 왔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현재 미국의 문화적 논쟁의 중심에서 있는 다문화주의를 심층적이고 포괄적으로 이해하는데 유용한 연구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는 세계화를 외치는 한국에도 미국의 본래면목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연구 대상의 방대함과 본 연구의 성격을 고려해 먼저 다문화주의의 이론적 측면을 고찰할 것이다. 다문화주의가 과연 어떤 문화적 배경과 사회적 맥락에서 발전하였는지를 심도 있게 다루고, 그 유형과 범주를 살피고자 한다. 이러한 다문화주의의 이론적 토대를 근거로 미국 및 라틴아메리카 문학계의 새로운 관심사로 떠오른 미국 내 소수 민족 문학인 치카노 문학의 분석을 통해 치카노들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제시하는 전망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나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본 연구에는 미국의 다문화주의에 대한 이론적 토대 연구에 그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텍스트 분석은 초창기 치카노 문학에 한정하고자 한다.

## II. 미국의 인종 정책

### 1. 미국의 인종 정책의 전개 과정

미국의 가장 큰 특징은 라틴아메리카계 미국인, 아프리카계 미국인, 아시아계 미국인 등 다양한 이민자들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계 여러 나라를 살펴보아도 미국만큼 다문화주의를 잘 보여주는 나라도 찾아보기 어렵다. 미국의 교육학자와 사회학자는 그동안 미국 사회를 흔히 ‘용광로’<sup>1)</sup>에 빗대어 왔다. 서로 다른 것들을 한데 녹여 새로운 것을 만드는 용광로라

1) 이 용어는 1908년에 공연된 영국계 유태인인 이스라엘 장윌(Israel Zangwill)의 <용광로

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이는 다양한 이민자들이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를 포기하고 미국이라는 용광로에 용해되어 새로운 미국인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며, 새로운 미국인은 기존의 앵글로-색슨계 미국인의 전통과 가치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동화(assimilation)’ 정책이다. 소수 민족 각자의 고유성을 인정하게 되면 미국 사회가 분열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실시된 이 정책은 백인 지배 문화가 소수 문화를 억압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으며, 다원주의를 특징으로 하는 미국 사회를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최병현, 박주정, 조세영 2000, 149).

미국 사회는 1960년대부터 젊은이들의 반문화 운동과 흑인을 중심으로 한 민권 운동이 성난 파도처럼 일어나면서 정치적·사회적·도덕적 갈등을 겪는다. 그동안 미국 사회가 취해 온 동화 정책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면서 새로운 시대적 요청에 부합하기 위해 나타난 것이 소위 ‘통합(integration)’ 정책이다. 흑인을 포함한 소수 민족을 하나로 통합하고자 하는 이 정책에 따르면 소수 민족에 대한 차별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통합 정책은 그룹 사이의 갈등과 긴장을 누그러뜨리고 인종이나 민족 간의 관계를 개선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데 불과하기 때문에 자유와 평등을 내세우는 미국의 민주주의의 본질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한다. 백인 중심적 사고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 정책은 동화 정책과 큰 차이가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인종 정책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살고 있는 다양한 소수 민족들은 미국 사회나 문화에 동화되거나 통합되기는커녕 오히려 각자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아울러 각 대학에 이러한 연구를 제도적으로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생겼으며, 소수 집단의 역사와 문화 연구서가 대량 발표되어 미국의 다양한 문화와 역사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공헌했다(함재

---

*Melting Pot*라는 연극에서 기원하였다. 이 연극은 대중들의 상상력을 사로잡았으며 이민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시사점을 던져 주었다. 만약 미국이 이질적인 것이라면 종족의 혼합은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며 미국은 세계를 이끌어 가기에 유례없이 적합한 새로운 민족을 창조하면서 모든 민족의 장점을 결합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이 이 연극의 주제였다(Nye 1996, 179-196).

봉 1998, 337-338). 이를 계기로 동화주의와 통합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새롭게 등장한 용어가 ‘샐러드 접시(Salad Dish)’ 이론이다. 각기 다른 형태와 맛을 가진 각종 채소들이 모여 공통의 드레싱에 의해 공평하고 동등하게 뒤섞이는 샐러드처럼 문화, 종교 및 인종이 다른 각각의 소수 민족들이 미국이라는 그릇 속에 각자의 문화를 간직하고 살고 있는 다원주의적 특성을 만들어 내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인들은 섞이지 않고도 서로 다른 색들의 수평적 공존을 통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낸다는 의미에서 자신들의 나라를 ‘무지개(rainbow)’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영국의 아메리카 식민지 시기부터 나타난 다양한 민족의 신대륙 이주와 이후 계속해서 이어진 이민의 물결은 미국 내 이민 인구를 증가시켰으며 1980년대 들어서 그들의 정치적인 발언과 경제력이 성장하면서 그들의 문화를 인정하는 다원주의를 거쳐 다문화주의라는 용어가 생성되었고, 온라인 네트워크는 이 개념을 급속히 확산시키게 된다.

## 2. 다문화주의의 영향과 보수주의자들의 반격

지배 문화와 피지배 문화, 중심 문화와 주변 문화의 서열을 없애고 다양한 문화의 공존을 주창하는 다문화주의는 그동안 와스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미국의 사회전반에 많은 영향을 준다. 특히 용광로 이론의 동화 이데올로기를 생산하는 학교에서의 단일 문화적 교육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다. 지금까지 미국 정부는 드러내 놓고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기존의 가치 체제와 제도에 순응하도록 강요해왔다.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를 거쳐 대학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교육 기관은 궁극적으로 한 나라의 이데올로기를 가르치고 전파하는 장소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여러 교과목 가운데서도 특히 문학은 그동안 인종적으로 서로 다른 집단을 한 나라의 주류 문화로 사회화시키는 정치적 도구로서의 구실을 톡톡히 맡아왔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문학 교육은 인류 역사를 통해 서구 문명을 대표하는 유산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나아가 교육을 통해 세대를 건너 전해

져야 된다는 소위 ‘정전(Canon)’에 속하는 백인 유럽 남성의 작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이른바 ‘드웜(DWEM)’ 작가들, 즉 ‘세상을 떠난 유럽의 백인 남성(Dead White European Males)’ 작가들이 교과 내용의 단골 메뉴로 등장하였고, 최근에 와서는 ‘르웜(LWEM)’ 작가들, 즉 ‘살아 있는 유럽의 백인 남성(Living White European Males)’ 작가들의 작품까지 그 교과 내용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이러한 교과 과정 역시 현재 살아 있다는 점만 다를 뿐 여전히 지배 문화에 속하는 작가들의 작품만을 고집한 유럽 중심적이고 남성 중심적이었다(김옥동 1998, 37).

그러나 1970년대 이후 다문화주의가 새로운 인식론적인 틀로 자리 잡으면서 일상생활 및 대학교에 다문화주의 가치가 반영되어 기존의 가치 체계에도 전을 가하고, 다문화주의적 가치에 바탕을 둔 공정성을 실현하려는 이른바 ‘정치적 공정성(Political Correctness)’ 운동이 일어난다(김성곤 1995, 21). 이러한 정치적 공정성이 추구하는 가치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기존의 교육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소수 인종의 입학과 관련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Affirmative action), 언행 수칙(Speech code), 교과 과정의 개편 등을 주장한다. 정치적 공정성 운동의 결과 백인 남성 중심의 유럽 문화로 이루어져 온 교과 과정이 개편되고, 초·중등학교와 대학에서 제공되는 교과목과 가르치는 방식이 소수 집단과 다양한 문화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된다. 이러한 교육 과정의 변화와 더불어 교사나 교수 채용 시 소수 민족과 여성들이 대거 채용된다. 미국의 문화는 하나의 단일한 실체가 아니라 다양한 개별 문화의 집합체라는 인식에 근거해 다양한 개별 문화를 독자적으로 연구하던 경향에서 각 인종·민족·문화 집단들 간의 관계 또는 각 집단과 주류 문화 사이의 관련성을 탐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학생들의 학력 증진을 위한 “핵심 지식 시리즈(Core Knowledge Series)”의 『5학년이 알아야 하는 것들 *What Your 5th Grader Needs to Know*』의 세계 문명 부분은 아메리카 원주민 문명과 유럽과 비유럽 문화의 접촉과 갈등에 각각 약 25%의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미국 문명 부분에서는

미국 원주민의 문화에 대해 기술한 후 유럽계 미국인과의 접촉을 원주민의 시각을 포함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6학년이 알아야 하는 것들 *What Your 6th Grader Needs to Know*』의 미술 부분에서는 파블로 피카소(Pablo Ruiz Picasso)의 작품, 나바호(Navajo) 원주민의 회화, 나이지리아 요루바(Yoruba) 출신 조각가의 작품이 실려 있다. 그리고 일부 학교에서는 라티노들의 자녀를 위해 영어-스페인어 공용의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였다. 대학에서는 민족과 인종을 연구하는 학과가 창설되거나 ‘문화적 다양성’과 관련된 과목이 교과 과정에 포함된다. 샌프란시스코 주립대는 1968년 최초로 흑인학 프로그램을 설치했고, 샌디에고 주립대는 1970년에 최초로 여성학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오레곤 대학은 1988년 최초로 “인종 · 젠더 · 비유럽학 수강 규정”을 제정해 “문학에 나타난 인종, 젠더, 계층 그리고 정체성” 등과 같은 과목을 의무적으로 수강하게 했다. 같은 해 스탠포드 대학에서는 그동안 유럽 중심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서양 문명(Westen Civilization)’이라는 필수 과목을 둘러싼 논란이 시작되면서 과목 명칭이 ‘문화, 관념, 가치’로 바뀌고 비유럽 문화권에 속한 작품들을 비롯하여 여성, 흑인, 라틴아메리카 작가, 아시아계 작가, 토착 원주민의 작품들이 새롭게 추가된다(김육동 1998, 38). 그동안 정전으로 융숭한 대접을 받아 온 작품들이 제외되고, 백인 작가들의 위력에 눌려 주변부에서 제대로 빛을 보지 못했던 소수 민족계 작가들의 작품이 정전의 반열에 오르게 된 것이다.

이미 굳어진 정전을 다시 고치는 작업을 흔히 ‘정전 형성’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정전 형성 작업은 순탄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비판이나 도전도 만만치 않았다. 보수주의자들은 이제까지 들어보지도 못한 소수 문화의 작품들을 집어넣기 위해 기존의 작품들은 제외한다는 것은 곧 진리와 객관성 그리고 보편성의 기준을 포기한 것으로 보았다. 예를 들어 앨런 블룸(Allan Bloom)은 『미국 정신의 종말 *The Closing of the American Mind*』에서 이 책의 긴 부제(How Higher Education Has Failed Democracy and Impoverished the Soul of Today's Students)를 통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고전으로 일컫는 작품들을 포기한 고등 교육이 민주주의의 실패를 불렀고, 대학 교육의 타락이 미

국 정신의 종말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이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훌륭했던 옛 방식인 고전 읽기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주장한다(Bloom 1987, 439). 허쉬(Hirsch) 또한 『문화 가독력 *Cultural Literacy: What Every American Needs to Know*』에서 한 사람이 사회에서 기능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작가들이 독자가 이미 알고 있을 것으로 상정하는 배경 지식, 즉 핵심 지식(Core Knowledge)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핵심 지식에 대한 교육을 등한시한 학교는 결국 그 학생들에게 미국의 민주주의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sup>2)</sup> 그러가 하면 윌리엄 베닛(William Bennett)은 서구 문화의 정전이야말로 미국처럼 서로 다른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는 다원적인 나라를 하나로 결합해주는 아교와 같은 구실을 한다고 주장했다(1984, 30).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정전 논쟁은 다문화주의에 기반을 둔 정치적 공정성 운동이 미국 교과 과정을 둘러싸고 일어난 것이다. 미국을 구성하는 다양한 가치를 배제하고 있는 기존의 정전에 반대하는 이들에게 교과 과정의 개혁은 필연적인 것이다. 나아가 정전 반대론자들과 정전 옹호론자들의 인식의 기저에는 각각 다문화주의와 이를 비판하는 보수주의자들의 가치 체계의 주장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정전 논쟁의 의미는 단지 정전이나 교과 과정을 둘러싼 논의로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미국 사회의 정체성 논의를 반영하고 있고, 그 성격을 가늠할 수 있는 작은 세계(microcosmos)로서의 가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 3. 다문화주의의 유형

다문화주의는 그 동안 미국 사회에서 무시되고 소외되었던 소수 민족들이 양적으로 증가하여 각 분야에서 그 영향력을 크게 미치게 됨에 따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실체로 자리잡아가는 과정에서 생겨난 것으로 그들과 그 문화를

---

2) 바로 이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핵심 지식을 이해하는 것이 '문화 가독력'이다. 허쉬가 핵심 지식이라고 일컫는 것은 앨런 블룸이 당대 교육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고전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Hirsch 1987, ix).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정책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입 정도에 따라 ‘온건한’ 다문화주의와 ‘강경한’ 다문화주의로 나눌 수 있다. 온건한 다문화주의는 어떤 사회 내에서 시행되는 다문화적 생활양식 및 소비양식과 같은 현상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반면에, 강경한 다문화주의는 온건한 다문화주의 내에 존재하는 피상적인 다문화주의를 극복하면서 민족적 정체성이라는 고전적 개념에 문제를 제기한다. 그리하여 국민적 정체성을 확장할 것을 제안하며, 그 과정에 소수 민족 집단들을 포함시킬 것을 주장한다(Martiniello 2002, 91, 106). 또한 유형에 따라 자유주의적 다원주의, 코퍼레이트 다원주의, 급진적 다원주의, 연방제 다원주의, 분리·독립 다원주의 등으로 구분하기도 하고(구건서 2003, 40-44), 성향에 따라서는 보수주의적 다문화주의,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 좌파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 비판적 다문화주의로 나누기도 한다(김옥동 1998, 30-34).

이 가운데 미국 문화와 치카노 문화 간의 공존과 대립이 어떻게 소설 속에서 형상화되고 있으며, 어떤 변화 과정을 겪어 가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본 연구에 가장 적합한 다문화주의의 유형은 최근 미국 학계를 휩쓸고 있는 성향에 따른 분석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유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보수주의적 다문화주의는 인종 차별적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백인 우월주의라는 식민지 유산을 거의 그대로 물려받아 백인이나 백인의 가치관이 늘 다른 소수 민족의 문화를 재는 척도 구실을 한다. 따라서 이 다문화주의가 내세우는 다양성이라는 것은 소수 민족에게 숨통을 터 줌으로써 자칫 통제할 수 없는 상태로 발전할지도 모르는 힘을 미리 무력화시키는 구실을 맡는다. 다시 말해서 압력 밥솥의 안전판 구실을 하는 그것은 소수 민족의 문화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 삼으려고 한다. 그러므로 보수주의적 다문화주의는 단일 문화주의와 크게 다르지 않다(김옥동 1998, 31).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는 사회 통합 측면에서 문화적 다양성을 허용하고, 에스닉 집단과 민족의 존재도 허용한다. 그러나 시민 생활이나 공적 생활에서는 주류 사회의 문화, 언어, 사회습관 등에 따를 것을 요구한다(구건서 2003,

40). 자신의 문화에만 매달리지 말고 좀 더 너그럽게 소수 문화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일 것을 주장하되 어디까지나 지배 문화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말하자면 보수주의적 다문화주의보다 좀 더 관용적인 태도를 취할 뿐 소수 문화 그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려고 하지 않는다. 또한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는 자칫 역사적 특수성이나 권력 구조를 무시하고 차별성을 없애 버리는 보편적 휴머니즘으로 흐르기 쉬운데, 이로 인해 비판의 칼날을 무디게 만들 위험이 있다(김옥동 1998, 32).

좌파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는 민족 간의 문화적 차별성을 강조하고,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자들처럼 자유와 평등을 내세우지 않는다. 이렇게 하다 보면 각각의 민족이 지니고 있는 개별적인 문화적 차이를 말살해 버릴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보수주의적 다문화주의가 문화적 동일성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면, 좌파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는 문화적 차별성을 지나치게 중시한다. 그러나 문화적 차별성을 본질화하려는 나머지 역사적·문화적 상황성을 소홀히 하거나 아예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다. 바꾸어 말해서 문화의 차별성을 구체적인 역사와 문화 그리고 권력을 떠나 존재하는 어떤 본질로 취급하려 든다. 좌파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는 적어도 극단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점에서 보수주의적 다문화주의와 크게 다르지 않다(김옥동 1998, 32).

보수주의적 다문화주의와 좌파 다문화주의 사이에서 조화와 균형을 피하려는 것이 바로 비판적 다문화주의이다. 비판적 다문화주의는 명실 공히 자유와 평등을 바라며 지배 문화의 권력을 변형시키고 그 가치를 전도하려고 한다. 비판적 다문화주의자들은 정치 변혁과 사회 정의를 가져오지 못하는 다문화주의란 결국 또 다른 형태의 기존 사회 질서에의 응화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비판적 다문화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동일성을 강조하는 보수주의적 다문화주의나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는 차별성을 중시하는 좌파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와 크게 다르지 않다. 동일성에 기초하는 정체성과 차별성에 근거를 두는 정체성은 궁극적으로는 본질주의 논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비판적 다문화주의자들은 문화적 차별성에 무게를 실되 그 차별성을 본질화 하려고

하지 않는다(김육동 1998, 32; McLaren 1994, 45-74).

따라서 이러한 태도를 취하는 학자들은 보편성보다는 개별성과 특수성을 훨씬 더 높이 여긴다. 그들에 따르면 문화란 구체적인 사회적 공간과 역사적 시간 안에서 일어나는 산물이다. 다시 말해서 문화란 어디까지나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구성물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개별성과 특수성을 무시한 채 보편성을 받아들이려는 것은 한낱 편견이나 지배 이데올로기를 감추기 위한 교묘한 술수와 크게 다르지 않다. 개별성과 특수성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아마 상황주의자들이나 해체주의자들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다. 다문화주의는 한마디로 바로 이들의 입장을 가리킨다.

지금까지 살펴본 미국의 인종 정책을 근거로 소수 민족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이라고 일컫는 멕시코계 미국인 작가들의 문학, 즉 치카노 문학에서 인종 정책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 III. 치카노 문학의 전개 과정

#### 1. 치카노 문학의 등장

2002년 흑인을 제치고 미국 최대의 비백인계 소수 민족으로 부상한 라티노<sup>3)</sup>

3) 2005년 6월 미국 연방 통계국이 발표한 인구동향 자료에 의하면, 2004년 7월 기준으로 라티노 인구는 4,130만 명으로 미국 전체 인구 2억 9,360만 명 가운데 14.1%를 차지하면서, 3,750만 명으로 전체 인구에서 12.8%를 차지한 아프리카계를 누르고 미국 최대의 소수 민족으로 부상하여 미국의 인구 지도를 바꾸어 놓았다. 다시 말하면, 미국인 7명 중 1명이 라티노였다. 그리고 2002년 3월의 통계에 의하면 라티노 중 66.9%가 멕시코 출신, 14.3%는 중앙 및 남아메리카 국가들 출신, 8.6%는 푸에르토리코인, 3.7%는 쿠바 출신, 나머지 6.5%는 다른 지역(예컨대, 카리브해 지역) 출신이었다. 이렇게 멕시코계가 압도적이다 보니, 미국에서 매년 5월 5일 거행되는 멕시코 축제인 ‘싱코 데 마요(Cinco de mayo)’가 미국 대도시들의 문화 현상이 된 지 이미 오래다. 라티노는 높은 출산률, 멕시코를 비롯한 중남미 지역으로부터의 빠른 인구 유입 등으로 인해 2020년에는 미국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게 되고, 2050년에는 25%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반면 2050년이 되면 현재 전체 인구의 2/3를 점하고 있는 백인계는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 미국은 어느 인종·민족도 인구의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는 ‘다수·소수 사회(majority-minority society)’가 될 것으로 보인다(김진웅 2006, 61 참조).

는 총체적으로 라틴아메리카 출신 미국인을 의미하며 히스패닉(hispanic)<sup>4)</sup>이라고도 불린다. 이들 라티노는 언어, 종교, 문화 등에서 동질성을 갖고 있지만 멕시코를 비롯한 쿠바, 푸에르토리코, 엘살바도르 등 그들의 출신에 따라 다양한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이 가운데 멕시코 출신은 전체 라티노의 65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 이민의 역사도 가장 오래된 소수 민족이다. 일부는 미국-멕시코 전쟁(1846-1848)의 패배로 맺어진 ‘과달루페-이달고 조약(Tratado de Guadalupe-Hidalgo)’(1848)에 따라 미국으로 강제 편입된 지역인 텍사스, 캘리포니아, 뉴멕시코, 애리조나, 네바다 등 소위 ‘아스플란(Aztlán)’이라 불리는 미국 남서부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의 후손들이다. 다시 말해 전쟁으로 인해 어느 날 갑자기 국적이 바뀌게 되었고 미국 역사에서 공식적인 의미의 라티노 집단이 등장하게 된다. 그러나 대다수의 멕시코 출신 라티노는 멕시코 혁명(1910) 이후 멕시코 내의 정치적 불안과 절대적 빈곤으로 인해 미국으로 건너온 이주자와 제2차 세계 대전 중인 1942년에 체결된 미국과 멕시코의 경제협약인 브라세로 프로그램(Programa de Braceros)<sup>5)</sup>에 의거하여 대규모로 멕시코와 접경지대인 미국 남서부 지역으로 이민 온 사람들이다. 그리고 80년대 멕시코가 경제적 위기를 맞이하면서 이제는 단순노동자들뿐 아니라 전문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이 여전히 이민의 물결을 이루고 있으면서 미국 내의 대표적인 소수 민족 사회를 형성하고 있다(이용선 2003a,

---

4) 히스패닉이라는 용어는 1970년대에 연방 정부가 미주 대륙의 스페인어 사용국가에서 태어났거나 조상이 스페인어나 과거 스페인령 출신들을 지칭하기 위해 만들어 낸 신조어이다. 따라서 히스패닉이라는 용어는 와스프로 불리는 백인 주류 사회에 대한 타자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스페인어 식민지 유산과는 차별되는 라틴아메리카 출신 미국 체류자들의 정치적, 사회적 결사를 강조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라티노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라틴아메리카계 이주민과 그 후손들의 정체성 확인이 보다 유리한 라티노라는 용어를 사용한다(이성훈 2005, 200-204 참조).

5) 브라세로 프로그램은 미국의 남서부 지역의 수확기를 맞아 계절적 노동력 수요를 보충하기 위한 것이었다. 한시적 노동비자를 받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본국으로 귀국해야 했는데 많은 노동자들이 이를 무시하고 불법 체류자로 남기도 하였다. 1964년 이후 이 프로그램이 끝나면서 실업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국경경제 프로그램을 가동하기 시작한다(이용선 2003a, 583).

583). 이 멕시코계 미국인들을 소위 치카노<sup>6)</sup>라고 부른다.

치카노 문학은 과달루페-이달고 조약에 의해 많은 멕시코 영토를 미국으로 넘겨주면서 공식적으로 존재하기 시작한 치카노 집단과 여러 가지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미국에 정착하게 된 치카노에 의해 생산된 모든 문학을 총칭하는 말이다. 따라서 치카노의 삶과 문화가 예술적으로 형상화되어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는 치카노 문학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된 미국 사회에서 전개되는 인종 정책과 다문화주의 정책의 실상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는데 유용한 방식으로 간주된다.

초창기 아스플란 지역의 문학은 역사이야기, 개인의 경험담, 민간 설화, 멕시코 민요인 꼬리도(corrido)와 같은 여러 가지 형태의 구비 문학이 단절되지 않고 그 명맥을 유지한다. 이때까지만 해도 문학은 간헐적으로 나타나곤 했는데 치카노에 관한 문제를 거의 다루지 않았다. 그러나 1848년에 체결된 과달루페-이달고 조약에서 아스플란 사람들은 미국정부로부터 그들의 언어, 종교, 전통문화 등을 존중하고 보존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며, 아스플란 지역을 그들만을 위한 지역으로 자치권을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실상은 심한 사회적 차별을 경험하게 되면서 치카노 사회의 당면 문제를 조심스럽게 반영하는 문학작품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1885년에 발표된 캘리포니아 태생의 마

6) 멕시코계의 미국 시민을 부르는 말로, 남성은 치카노(Chicano o Xicano), 여성은 치카나(Chicana o Xicana)라고 한다. 치카노라는 말의 어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멕시코인을 의미하는 스페인어 형태인 메히카노(Mexicano)로부터 기원했다는 설이 있다. 1920년대와 1930년대 멕시코인들의 미국 이민 초창기에는 주로 멕시코 인들을 비하하는 말로 사용되었다. 이 말이 널리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 초, 멕시코계인들의 권리를 주장한 ‘치카노 운동(Movimiento chicano)’을 통해서이다. 이 운동에 참여한 활동가들은 멕시코계인들을 단결시키려는 의도로 치카노라는 말을 사용하며, 비하의 느낌을 견어내고 인종·민족적 자긍심과 정체성, 주체성을 표현하는 말로 정착시켰다. 그래서 ‘치카노라는 말에는 미국 시민으로서 존중받고 자신들의 존재감을 알려야 한다는 정치적 의식과 고유한 문화의 식이 담겨 있다. 치카노 운동을 통해 형성된 치카노 문화는 문학(시와 소설), 시각예술(벽화, 그래픽 아트), 음악(록, 재즈, 랩 등) 분야에서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며, 특히 치카노 문학과 시각예술은 그들의 정체성과 문화, 그리고 차별문제를 주요 주제로 삼았다(최낙원 2007, 386 참조).

리아 암바로 루이스 데 부르톤(María Amparo Ruiz de Burton)의 소설인 『무단 점유자와 지주 *The Squatter and the Don*』는 금광을 찾아 캘리포니아에 건너 온 앵글로-색슨계 침략자에게 폭력을 당하고 자신의 땅을 모두 빼앗긴 부유한 치카노 출신 지주의 사회적 몰락 과정과 이러한 불법적인 약탈을 통한 독점 자본가의 출현을 드러내고 있다. 이 작품에 이어서 1892년에 발간된 뉴멕시코 출신의 에우세비오 차콘(Eusebio Chacón)의 소설 『대소란의 자식 *El hijo de la tempestad*』 또한 미국 남서부 지역에 거주하는 치카노들의 사회적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Martín-Rodríguez 1995, 33-34).

또한 1889년 발표된 뉴멕시코 출신의 대표적인 치카노 시인 헤수스 마리아 알라리드(Jesús María Alarid)의 시 「스페인어 *El idioma español*」는 학교에서 수업이 영어로만 진행됨으로써 치카노 자녀들이 겪게 되는 정체성의 혼란상과 이로 인해 야기되는 세대 간의 수직적 문화갈등을 토로하면서 모국어인 스페인어가 병용되기를 희망한다.

아름다운 언어인 스페인어야  
왜 그들은 너를 내쫓으려 할까?  
네가 존재치 못할 이유를  
난 어디서도 찾을 수 없건만  
스페인어와 영어  
이 두 언어가 미국 땅에서 동시에  
공평하게 사용되면  
좋으련만<sup>7)</sup>

지금까지 발표된 치카노 문학은 그들이 처한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는데 그쳤지만 1910년에 일어난 멕시코 혁명은 미국 영토로 변한지 반세기가 지난 시점에서 그동안 잊혀져가던 멕시코 전통문화와 고유정서를 또 다시 타오르게 만드는 계기가 된다. 멕시코 혁명 이후 미국으로 건너온 수많은 이주자들 가운

7) 이 시는 1976년에 발간된 안셀모 아레야노(Anselmo Arellano)의 『새로운 멕시코 주민들과 그들의 시 *Los pobladores nuevos mexicanos y su poesía*』에 포함되어 있으나 본 고에서는 Martín-Rodríguez 1995, 37에서 재인용함.

데 정치적 동기에 의해 망명을 떠난 일부 지식인들은 치카노들이 멕시코인으로서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미국 주류 사회에 동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양한 의식화 작업을 펼친다. 예를 들어,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 이주해온 기자 출신의 훌리오 아르세(Julio Arce)는 1915년부터 샌프란시스코에 정착해 편집장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치카노 문화와 스페인어의 우월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 혁명시기에 멕시코의 지성인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 중의 한사람이었던 리카르도 플로레스 마곤(Ricardo Flores Magón) 역시 샌안토니오와 로스앤젤레스에서 자신이 발행인으로 근무했던 『리제네레이션 *Regeneration*』지를 통해 치카노 문화의 자긍심을 전파하고 정체성 회복을 위한 문화운동을 펼친다(Martín-Rodríguez 1995, 36).

소설을 통해 반동화주의에 앞장섰던 작가로는 요세피나 니글리(Josephina Niggli)를 들 수 있다. 먼저 니글리는 1945년에 발간된 『멕시코인 마을 *Mexican Village*』이라는 작품에서 멕시코계 어머니와 앵글로-색슨계 아버지 사이에 태어난 불륜의 아들인 밥 웹스터의 정체성 형성 과정을 그리고 있다. 아버지는 아들의 너무나도 뚜렷한 멕시코인 용모 때문에 자신의 아들임을 부인하기에 이른다. 그리하여 한동안 방황하지만 그의 아버지의 편협한 행위에 대한 기억 때문에 미국인의 가치에 대한 의심과 미국인의 태도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면서 자신을 길러준 할머니의 고향 마을인 이달고에 정착하게 된다. 따라서 이작품은 이질적인 두 문화를 경험하지만 백인 주류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한 멕시코계 미국인의 전형을 제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작품들에 나타난 치카노들은 1848년 체결된 과달루페-이달고 조약으로 미국 시민권을 인정받음으로써 공식적으로 인종 차별은 존재하진 않지만 실제로는 백인 우월주의라는 식민지 유산을 물려받아 와스프 주류 집단의 가치관이 늘 소수 민족의 문화를 재는 척도 구실을 하고 있는 보수주의적 다문화주의와 상당부분 일치하고 있다. 『무단 점유자와 지주』에서 치카노를 폭행하고 불법적인 약탈을 일삼는 백인 독점 자본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시민권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소수 민족을 받아들여지되 사실은 지배 문화의 이념

을 감추기 위한 교묘한 장치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스페인어」에서는 공동 문화를 만든다는 구실 아래 스페인어를 억압하고 표준 영어만을 유일한 공식어로 고집함으로써 치카노의 의식과 정신을 지배하고 통제하려고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2. 통합주의적 치카노 문학

1940년대의 인구 동향 자료를 통해 백인으로 범주화된 치카노들은 자신이 백인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인정받았다고 믿고 제2차 세계대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미국의 애국주의에 동원되는 등 미국 주류 사회에 동화되고자 노력하였다. 전쟁에 참여했던 치카노들이 주축이 되어 결성된 ‘지아이 포럼(G.I. Forum)’은 의회를 비롯한 각 단체에 영향력을 행사해 그들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면서 백인사회와 교두보 역할을 담당하였다. 언어 또한 젊은 세대들이 학교에서 영어를 배우면서 영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증대되었고, 이 지역에 점차 앵글로-색슨계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영어가 지배적인 언어로 등장하였다.

치카노 작가들 또한 치카노 사회에 불어 닳친 변화의 바람 사정권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명분보다 실리를, 이상보다 현실을 택했다. 이들 작가들은 백인 독자들을 의식해 작품을 스페인어보다 영어로 쓰기를 선호했다.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해 영어로 쓰여진 최초의 치카노 소설은 1954년에 발간된 뉴멕시코 출신의 프라이 앙헬리코 차베스(Fray Angélico Chávez)의 『정복녀 *La conquistadora*』이다.(Luis Leal 1982, xi) 이 작품은 제목만 스페인어로 되어 있을 뿐 내용은 영어로 된 것이다. 이후 출판된 치카노 소설들은 대부분 뉴욕에서 가장 큰 출판사에서 영어로 출판되었으며 주 독자층은 백인이었다. 따라서 치카노를 차별하는 백인 사회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에서 벗어나 이중적인 구조의 사회적 상황에서 치카노들이 겪는 문화 변용(aculturación) 과정에서의 갈등을 주로 형상화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 변용 과정이 반영된 대표적인 소설은 1959에 출판된 호세 안토니오 비야레알(José Antonio Villareal)의 『뽀초 *Pocho*』이다. 민족주의 치카노

소설의 시발점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 작품은 멕시코 혁명 이후 미국에 이주한 한 멕시코 가정을 통해 새로운 문화와 충돌하면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문화 변용 과정을 잘 보여준다. 이민 1세대인 아버지 후안은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자세보다는 자녀들에게 스페인어를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모습에서 볼 수 있듯이 멕시코 문화 전통을 고수하고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고립형의 전형을 보여준다.<sup>8)</sup> 전통적인 가부장제 가족의 어머니인 꾀수엘로는 능동적으로 미국 주류 사회에 동화되어 남편의 절대적인 권위에 도전하며 하나의 인격체로서의 권리를 추구한다. 이 작품의 주인공인 아들 리차드는 이질적인 두 문화 사이에서 갈등하지만 미 해군 입대를 결정하는 모습에서 드러나듯이 생존 전략 차원에서 미국 주류 문화에 동화되고자 필사적인 노력을 한다.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한 리차드는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이질성이 배제되고 동질성이 내포된 군대를 자신의 안식처로 선택했던 것이다. 그러나 유색 인종이라는 치명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는 그는 백인 중심의 미국 주류 사회로의 완전한 동화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 이렇듯이 작품은 이민 가족이 미국에 정착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문화 변용의 양태인 고립과 수용과 동화 과정을 통해 뽀초들<sup>9)</sup>이 겪는 정체성의 혼란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Tatum 1985, 154-156 참조).

이 작품에 이어서 미국 내 새로운 환경 속에서 치카노들이 겪는 문화 변용

8) 이민자들이 타민족과 교류하면서 주어진 기회 구조 안에서 사회, 경제, 문화, 심리적 적응을 본격적으로 하는 시기인 문화 변용 과정의 정착 단계에서 정착 사회의 참여 정도와 민족 문화의 정체성 유지 정도에 따라 수용, 동화, 고립, 주변화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먼저 수용은 소수 민족 이민자들이 거주국의 주류 사회에 활발히 참여하면서도 자신들의 문화와 전통을 유지하는 경우이다. 동화는 이민자들이 주류 사회에 활발히 참여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와 정체성을 상실하여 주류 사회에 흡수되는 경우이다. 고립은 이민자들이 사회 참여를 활발하게 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문화를 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경우이다. 주변화는 주류 사회에도 참여하지 않고 자신들의 문화도 잃어버리는 경우로써 사회의 밑바닥 계층으로 전락하여 기성 질서에 반항하는 가치관과 행동양식을 갖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이용선 2003b, 499-500).

9) 뽀초는 치카노라는 용어와 함께 멕시코계 미국인을 지칭해 경멸적으로 사용한 용어이다.

과정을 잘 드러낸 작품은 1970년에 발표된 리차드 바스퀘스(Richard Vásquez)의 『치카노 Chicano』와 1971년 발표된 에르네스토 갈라르사(Ernesto Galarza)의 『치카노 거주지역의 소년: 문화 변용 과정의 소년 *Barrio Boy: the story of a Boy's Acculturation*』이다. 먼저 1970년대 대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널리 읽혔고 지금까지 치카노 소설의 고전으로 인정받고 있는 바스퀘스의 『치카노』는 멕시코 혁명 이후 캘리포니아로 이주한 산도발 가족이 미국 사회에 동화되고자 노력하지만 문화와 인종적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육체적·문화적으로 붕괴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앞에서 살펴본 비야레알의 작품과 마찬가지로 멕시코계 미국인을 지칭해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치카노라는 용어를 사용한 소설의 제목에서 이미 잘 드러나듯이 생존의 차원에서 미국 주류 사회에 동화되고자 노력하지만 그들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정체성 확립에 많은 갈등을 겪고 있는 치카노들의 당면 문제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다.

갈라르사 자신의 경험을 반영한 소설인 『치카노 거주지역의 소년: 문화 변용 과정의 소년』은 멕시코에서 캘리포니아의 한 가난한 지역에 이주한 한 가족이 자신의 전통과 문화를 지키면서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이 작품 또한 새로운 사회에서 겪게 되는 문화 변용 과정을 다루지만 위 두 작품과는 달리 새로운 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것이 반드시 정체성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 작품들은 미국 남서부지역으로 이주한 멕시코인들이 이질적인 미국 사회에 적응하고자 하는 문화 변용 과정을 주로 다루면서 자신들의 희망이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층위의 제도적 장벽에 의해 막혀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 교묘한 인종 정책을 펼치고 있는 미국 사회에서 치카노들이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노력하는 움직임을 잘 반영하고 있다. 사실 치카노 운동은 1920년대 이후 중간계층의 통합주의적 열망을 대표하는 라틴계 미국시민연맹(The league of United Latin American Citizens: LULAC)이 미국사회에 완전한 동화와 통합을 촉진하는 움직임으로 시작한다. 『뽀초』의 주인공인 리차드의 미 해병 입대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듯이,

미국 사회로의 완전한 동화를 목적으로 미국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백인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미국 군대를 전역한 치카노들이 주축을 이룬 지아이 포럼의 경우도 여전히 통합주의적 관점에서 치카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었다(김덕호, 김연진(2001), 283; 이성훈(2006), 162-163 참조). 개량주의적 또는 자유주의적 운동이라 평가되는 초기 치카노 운동은 미국 내 소수 민족과 그 문화를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등장한 다문화주의 유형 가운데 모든 개인의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만 소수 민족 집단의 문화와 정체성은 인정하지 않는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 노선과 상당 부분 일치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다문화주의가 내세우는 다양성이라는 것은 따지고 보면 보수주의적 다문화주의보다 조금 관용적인 태도를 취하긴 하지만 이 역시 백인 중심의 지배 이념을 감추기 위한 교묘한 장치에 불과하다는 점을 위에서 살펴본 작품에서 잘 드러내고 있다. 치카노 작가들이 제시한 주인공들은 주류 사회에 대한 동화와 편입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지만 인종적 차이, 언어, 습관, 피부색의 차이에 의해 주류 사회로부터 배제되고 있다는 현실적인 자각을 하기 시작한다. 더 이상 치카노들이 백인 중심의 주류 사회에 동화되기 위해 애쓰기 보다는 자신들의 태생적 문제에 눈을 뜨기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작품들의 중심 테마는 기존의 중산층 위주의 백인 주류 사회로의 동화나 통합을 위한 움직임에서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작품들이 당시 치카노들이 경험했던 불평등한 현실을 사실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이후에 전개될 치카노 민족주의 문학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 IV. 나가면서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치카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으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전개하고 있으며 문학을 통해서도 그들이 겪는 서러움과 불평등을

표출하고 있다. 특히 초창기 치카노 문학은 주로 미국 남서부지역으로 이주한 멕시코인들이 정착 사회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화 변용 과정을 다루면서 자신들의 희망이 여러 가지 장벽에 의해 막혀있음을 자각하고 태생적 문제에 눈을 뜨기 시작해야 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주류 사회에서 부르짖은 다양성과 평등은 한낱 허울 좋은 구호에 지나지 않은 다문화주의라는 점을 잘 드러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고의 연구 대상이 방대함에 따라 다음 기회로 상세히 다루고자 하는 치카노 민족주의 문학에 대하여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미국 주류 사회가 복수 문화의 공존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한 치카노들은 더 이상 백인 중심의 주류 사회에 편입하기 위해 애쓰기 보다는 자신들의 고유한 정체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민족주의 형태의 투쟁을 전개하기 시작한다. 이른바 ‘치카노 운동’으로 불리는 이 운동은 1960년대 초에 시작한 흑인들이 전개해온 시민권 운동의 영향을 받은 치카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한 긍정과 자결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일련의 급진적이고 민족주의적인 움직임이다. 치카노 운동이 가장 조직적이고 정치적 의미를 가지고 등장한 것은 도시 중심의 학생 운동이었다(최낙원 2007, 388). 이 가운데 치카노들의 문화적 민족주의의 이념이 정립된 결정적인 계기는 1969년 콜로라도의 덴버에서 개최된 전국 치카노 청년회의에서 채택된 ‘아스뜰란 정신 선언문(Plan Espiritual de Aztlán)’이다. 대학생 중심으로 진행된 이 운동은 지금까지 자신들을 규정해오던 ‘백인’으로서의 공식적인 분류를 거부하고 이른바 ‘라사(raza)’에 대한 일체감을 통해 새로운 정체성을 모색하고자 했다. 이전 세대가 주장했던 미국의 용광로에 적극적으로 융해되어 새로운 미국인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동화 정책과 단절하고, 치카노들은 아스뜰란이라는 신화적 공간과 시간 속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다시 확립하고 정치적 통합을 이루고자 한 것이다(이성훈 2005, 207-208). 치카노의 문화적 민족주의의 근거가 된 이 선언문이 채택되면서 과거 경멸적으로 사용되었던 ‘치카노’라는 용어도 부정적 이미지에서 벗어나 미국 남서부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멕시코계 미국인들의 문화적, 정신적 구

심점을 상징하는 용어로 자리 잡게 된다.

이러한 치카노 운동의 이념을 실현하고 전파하기 위해 노력했던 곳이 바로 문학 부문이었다. 치카노들이 직면한 사회적인 문제를 가장 먼저 재현한 인물은 루이스 발데스(Luis Valdez)이다. 그는 치카노들의 당면 문제를 무대에 올림으로써 관객들이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행동을 취하도록 유도하는 형식을 취했다. 발데스에 이어서 치카노의 문화적 전통을 복원하고 치카노 운동의 지향점을 명확히 밝힌 작가는 꼬르끼(Corky)라는 예명으로 더 알려진 로돌포 곤살레스(Rodolfo Gonzales)이다. 그는 1967년에 발표한 『나는 호아킨이다 *I am Joaquín*』에서 치카노 민족주의를 통해 백인 주류 문화와의 단절을 주장하고,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독립적인 공동체를 결성하기를 주장하며, 아스플란 개념을 하나의 분리주의적인 이념으로 만들어 낸다.

치카노 소설 또한 치카노 운동의 이념을 전파하기 위해 문학적 소재를 치카노들의 삶의 양식과 내용에서 추출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시기에 발간된 대부분의 작품은 강력한 정치적 의도를 담고 있다. 치카노들의 보편적인 삶 자체가 정치성과 단절되어 고려되기에는 지나치게 비인간적이었던 것이었다. 이러한 치카노 민족주의 소설은 1967년 버클리에서 순수한 치카노 자본과 치카노 문인과 편집자들로 구성된 킨토솔(Quinto sol) 출판사가 창단되면서 시작된다. 치카노 문학을 통해 치카노 운동의 이념을 전파할 분명한 목적으로 창단된 이 출판사는 자신의 이러한 목적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한 소설 부문을 집중적으로 장려했다. 이에 따라 토마스 리베라(Tomás Rivera)의 『...그리고 땅은 갈라지지 않았다 *...y no se lo tragó la tierra*』가 1971년에 출판되어 공전의 히트를 치게 된다. 이 작품에 이어서 치카노 세계의 사회적 문제를 주된 관심사로 둔 로돌포 아나야(Rodolfo Anaya)의 『나를 축복해 주세요, 올띠마 *Bless Me, Ultima*』(1972), 미겔 멘데스(Miguel Méndez)의 『아스플란의 순례자 *Peregrinos de Aztlán*』(1975), 알레한드로 모랄레스(Alejandro Morales)의 『낮익은 얼굴과 새 포도주 *Caras viejas y vino nuevo*』(1975), 롤란도 이노호사-스미스(Rolando Hinojosa-Smith)의 『바예의 형상과 그밖의 작품들 *Estampas del Valle y otras*

*obras*』(1973)과 『클레일시와 근교 *Klail City y sus alrededores*』(1976)등이 연이어 출판되면서 치카노 민족주의 소설의 르네상스를 보낸다.

치카노 운동 이념을 반영한 이 작품들은 치카노들이 경험한 인종 차별과 착취를 고발하면서 정치적 의도를 분명히 드러낸다. 그러나 치카노 운동에 나타나는 분리주의적 민족주의를 주장한다거나 체제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판에 중심을 두지는 않는다. 정체성 확보를 위해 인디오적인 유산을 재발견하고 평가하면서 좀 더 창조적이고 개방적인 관점에서 문화를 인식하기 시작한다. 폭력적인 권력체제에 저항함과 동시에 세대 간의 갈등을 묘사하고, 멕시코 전통의 종교적인 유산에 대해서도 차별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을 피력한다. 따라서 다문화주의의 진정한 가치를 제시하고자 노력한다. 이 분야는 추후 연구에서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구건서(2003), 「다문화주의의 이론적 체계」, 현상과 인식, Vol. 27, No. 3, pp. 29-53.
- 김덕호, 김연진(2001), 『현대 미국의 사회운동』, 비봉출판사.
- 김성곤(1995), 「미국 소수인종 문화의 최근 부상에 대한 고찰: 도의적 공정성(Political Correctness)과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 영학논집, No. 19, pp. 21-35.
- 김옥동(1998), 「다문화주의의 도전과 응전」, 미국학논집, Vol. 30, No. 1, pp. 29-49.
- 김진웅(2006), 『미국인의 탄생-미국을 만든 다원성의 힘』, 살림출판사.
- 이성훈(2005), 「경계의 정체성: 라티노 연구를 위한 시론」, 외국문학연구, No. 20, pp. 199-216.
- \_\_\_\_\_(2006), 「1960년대 치카노 운동과 치카노 민족주의의 등장」, 중남미 연구, Vol. 25, No. 1, pp. 155-177.
- 이용선(2003a), 「『망고거리의 집』을 통하여 본 치카노 문화 특징 연구」, 서어서문연구, No. 28, pp. 493-509.
- \_\_\_\_\_(2003b), 「소설 『뽕초』에 나타난 문화변용에 관한 연구」, 서어서문연구,

No. 29, pp. 499-500.

최낙원(2007), 「치카노 시에 나타난 정체성 연구」, *스페인어문학*, No. 44, pp. 385-404.

최병현, 박주경, 조세영(2000), 『미국문화와 사회』, 대우출판사.

함재봉(1998), 「미국의 탈근대주의」, 『미국사회의 지적 흐름-정치·경제·사회·문화』, 서울대출판부.

Albaladejo Martínez, Manuel(2006), “La Presencia del español en la literatura escrita en los Estados Unidos: La literatura chicana,” <http://www.arscreatio.com/1/articulos/009-chicana.asp>

Bennett, William(1984), *To Reclaim a Legacy: A Report on the Humanities in Higher Education*, Washington, D. C.: National Endowment for the Humanities.

Bloom, Allan(1987), 『미국 정신의 종말』, 이원희 옮김, 범양사.

Eguíluz Ortiz de Latioero, Federico(2000), “Algunas reflexiones para entender la literatura chicana,” Rosa Morillas Sánchez y manuel villar Raso(eds.), *Literatura chicana: Reflexiones y ensayos críticos*, Granada: Comares, pp. 99-108.

Goldberg, David Theo(ed.)(1994), *Multiculturalism: A Critical Reader*, Oxford: Basil Blackwell.

Herrera-Sobek, María(1994), “Transformaciones culturales: La tradición oral mexicana y la literatura de escritoras chicanas,” Heb. Hermans y Francisco Lasarte(eds.), *Literatura chicana*, Amsterdam-Atlanta: Rodopi B.V., pp. 63-80.

Hirsch, E. D.(1987), *Cultural Literacy: What Every American Needs to Know*, Boston: Houghton Mifflin.

Leal, Luis(1982), “Prólogo,” Rodríguez del Pino, Salvador(1982), *La novela chicana escrita en español: cinco autores comprometidos*, Michigan: Bilingüe. pp. ix-xi.

Lomelí, Francisco A.(1994), “Orígenes de la literatura chicana en Nuevo México,” Heb. Hermans y Francisco Lasarte(eds.), *Literatura chicana*, Amsterdam-Atlanta: Rodopi B.V., pp. 13-22.

Martiniello, Marco(2002), 『현대사회와 다문화주의』, 윤진 옮김, 한울.

Martín-Rodríguez, Manuel M.(1995), “Prefacio,” *La voz urgente: Antología de literatura chicana en español*, Madrid: Fundamentos, pp. 13-103.

McLaren, Peter(1994), “White Terror and Oppositional Agency: Towards a Critical Multiculturalism,” *Multiculturalism: A Critical Reader*, Oxford: Basil Blackwell, pp.

45-74.

- Meier, Matt S./Ribera, Feliciano(2001), *Mexican Americans/American Mexicans: From Conquistadores to Chicanos*, New York: Hill and Wang.
- Nye, David(1996), 『현대와 미국사회』, 임찬빈 옮김, 탐구당.
- Ortega, José(2000), “El conflicto intercultural chicano-angloamericano,” Rosa Morillas Sánchez y manuel villar Raso(eds.), *Literatura chicana: Reflexiones y ensayos críticos*, Granada: Comares, pp. 295-302.
- Paredes, Raymund(2002), “Teaching Chicano Literature: An Historical Approach,” <http://www.georgetown.edu/tamilt/assays/chicano.html>.
- Rodríguez del Pino, Salvador(1982), *La novela chicana escrita en español: cinco autores comprometidos*, Michigan: Bilingüe.
- \_\_\_\_\_(1979), “La novela chicana de los setenta comentada por sus escritores y críticos,” Heb. Hermans y Francisco Lasarte(eds.), *The Identification and analysis of Chicano Literature*, New York: Bilingüe, pp. 153-160.
- Rodríguez, Juan(1979), “La búsqueda de identidad y sus motivos en la literatura chicana,” Heb. Hermans y Francisco Lasarte(eds.), *The Identification and analysis of Chicano Literature*, New York: Bilingüe, pp. 170-178.
- Tatum, Charles(1985), *Literatura chicana*, México: Consejo Nacional de Fomento Educativo.
- Taylor, Charles(1994), *Multiculturalism: Examining the Politics of Recogni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Villanueva, Tino(com.)(1980), *Chicanos: Antología histórica y literaria*, México: Fondo de Cultura Económica.
- Villarreal, José Antonio(1989), *Pocho*, New York: Anchor Books Editions.

## 박종율

조선대학교  
chongyul0108@hanmail.net

논문투고일: 2013년 7월 29일

심사완료일: 2013년 7월 31일

게재확정일: 2013년 7월 31일

# The Politics of Race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Emergence of Chicano Literature

**Chong-Yul Park**  
Chosun University

Park, Chong-Yul(2013), The politics of race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emergence of Chicano literature.

**Abstract** This work attempts to investigate the politics of race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development of Chicano literature that explores the history of Chicanos from the 1880s until the 1960s. Beyond a few sporadic previous works, it is possible to classify contemporary Chicano novelists into two groups. The first group is the pioneers who published their works between 1959 and 1971; Jose Antonio Villareal, author of *Pocho* (1959), Richard Vasquez and Ernesto Galarza. Their works were written in English with traditional technique characteristic of Anglo-American letters and treated primarily the issue of acculturation of Mexican family after coming to the United States. The acculturation process is assimilated to conservative multiculturalism and liberal multiculturalism. The second group consists of the most outstanding novelists as Tomas Rivera and Miguel Mendez who written his first works between 1971 and 1976. During this period occurs the maturation of Chicano novel with some factors that help greatly to this development: the creation of the first Chicano publisher Quinto Sol in 1969. In general, these novels are written from the perspective of critical multiculturalism.

**Key words** Politics of race in the United States, Multiculturalism, Chicano movement, Chicano literature, Chicano novel